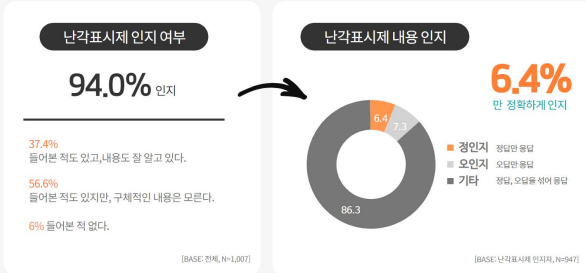


2021 케이지 프리 시민인식 조사 ①

조사수행기관 : 한국갤럽
조사대상 : 1개월 이내 달걀을 직접 구매 경험에 있는 25~59세 성인 남녀
조사지역 : 전국 (서울 및 6대 광역시)

유효표본수 : 1,007명
조사방법 : 온라인 조사(Online Survey)
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 3.1%p

Q 달걀 껍데기에 달걀 관련 정보가 적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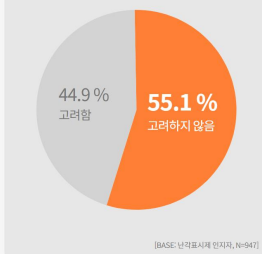


Q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중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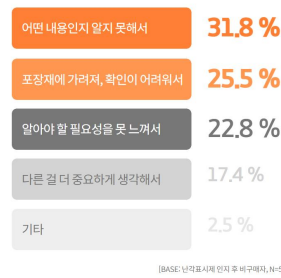


난각 표시제를 고려한 달걀 구입 여부

Q.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고려하여, 구매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



Q 난각 표시제를 고려하지 않고, 달걀을 구입한 이유



Q 다음 포장지 달걀은 어떤 사육환경에서 자란 달걀로 연상되시나요?



Q 달걀 포장재 표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


2021 케이지 프리 시민인식 조사 ②

조사수행기관 : 한국갤럽
조사대상 : 1개월 이내 달걀을 직접 구매 경험이 있는 25~59세 성인 남녀
조사지역 : 전국 (서울 및 6대 광역시)

유효표본수 : 1,007명
조사방법 : 온라인 조사(Online Survey)
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 3.1%p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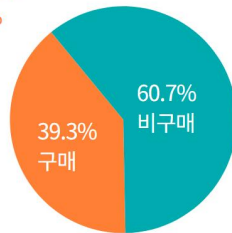
Q 최근 1개월 간 케이지프리 달걀 구입 경험이 있으신가요?

* 케이지프리 달걀 : 사육환경 1,2번 달걀 (동물복지 인증달걀 포함)

구입 이유

- 1 식품 안정성이 더 높을 것 같아서 25.8%
- 2 달걀 품질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4.5%
- 3 더 신선할 것 같아서 22.0%
- 4 동물복지에 고려하여 18.4%
- 5 맛이 더 좋을 것 같아서 9.1%
- 6 기타 0.5%

[BASE: 케이지프리달걀 구매자, N=396]



[BASE: 전체, N=1,007]

비구입 이유

- 1 가격이 비싸서 60.4%
- 2 달걀 품질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4.2%
- 3 닭의 사육환경에 대해 관심 없어서 8.8%

사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6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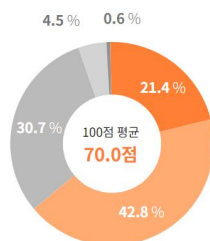
표시된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 4.1%

선호하는 제품이 있어서 2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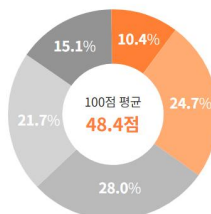
구입처에서 판매하지 않아서 1.8%

[BASE: 케이지프리달걀 비구매자, N=611]

Q 향후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?



가격 제시 전
64.3%
구매의향



가격 제시 후
35.2%
구매의향

- 의향이 많이 있음
- 의향이 있음
- 보통
- 의향 없음
- 의향이 전혀 없음



일반란 대란 30개 기준
5000원으로 가정

케이지 프리 달걀
9,000원

[BASE: 전체, N=1,007]

Q 케이지 프리 달걀 적정 / 최대 지불 가능 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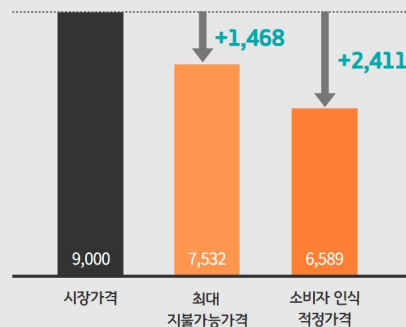
일반란 대란 30개 기준
5,000원 가정



동물복지달걀
소비자 인식 적정가격 6,589 원 1.3배

동물복지달걀
최대 지불 가능가격 7,532 원 1.5배

동물복지달걀
시장가격 9,000 원 1.8배



[BASE: 전체, N=1,007]